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일반매칭2팀

	일시	5월 12일 12 : 00PM 미래관 지하 그라찌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대현(1911153)	O	
	주창돈(2411105)	O	
	이우혁(2592014)	O	
	이에은(방을 나간 관계로 학번 미상)	X	
진도	도서명: 허클베리핀의모험(민음사 2005)	진도페이지:	제1장~제5장
1주차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이우혁, 주창돈, 김대현]</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b>토론내용 작성</b></p> <p><b>주창돈</b> - 대학에 와서 중,고등학교처럼 공부만 하는줄 알았는데 여러 대외활동, 봉사활동, 공모전, 여러 소모임에 참여하며 세상에 공부가 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양한 사회경험과 의사소통,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수행하다보니 점수로 등급을 나누던 계급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p> <p><b>이우혁</b> - 대학에 오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고등학교 때는 주어진 규칙과 기대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선택한 진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반대받은 분야였지만, 나는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 경험을 통해 규칙이나 기대보다는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p> <p><b>김대현</b> - 대학교 진학 당시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권유했지만, 나는 문화콘텐츠와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다소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고, 지금은 그 선택 덕분에 제가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는 일을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다. 학이 사회의 규칙을 거슬러 짐을 도우며 자신만의 도덕을 따랐던 것처럼, 나도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 불안했지만, 그 결정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게 해주었고,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p>	

일시	5월 17일 10 : 00AM ZOOM 화상미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대현(1911153)	O
	주창돈(2411105)	O
	이우혁(2592014)	O
	문혜진 교수님	O
	이예은	X
진도	도서명: 허클베리핀의모험(민음사 2005)	진도페이지: 제6장~제12장



[좌측부터 문혜진교수님, 김대현, 주창돈, 이우혁]

2주차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주창돈** - 노예는 소유물이라는게 당연했던 시기라 노예를 재산으로 생각해 다시 붙잡아 넣으려는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에는 미치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라 신기했고 그 때 당시 산업혁명과 인간공학이 생기지 않아 노동자를 존중해야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우혁** - 허클베리 핀에서는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불평등한 시스템을 풍자적으로 다룬다. 짐과 허클의 관계를 통해 사람은 단지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때 당시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했는지,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차별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느꼈다.

**김대현** -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짐이라는 흑인 노예 캐릭터를 통해 19세기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의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마크 트웨인은 백인 사회의 위선을 풍자하고, 허클과 짐의 우정을 통해 인간의 평등성과 도덕적 자각을 강조. 이 소설은 여전히 인종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고전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문혜진 교수님** - 당대 인종차별을 날카롭게 풍자하면서, 인간 존엄성과 도덕적 성장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평가.

일시	5월 23일 12 : 00PM 미래관 지하 그라찌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대현(1911153)	O
	주창돈(2411105)	O
	이우혁(2592014)	O
	문혜진 교수님	O
	이예은	X
진도	도서명: 허클베리핀의모험(민음사 2005)	진도페이지: 제12장~제17장

3주차



활동 사진 추가

[좌측부터 김대현, 주창돈, 문혜진 교수님, 이우혁]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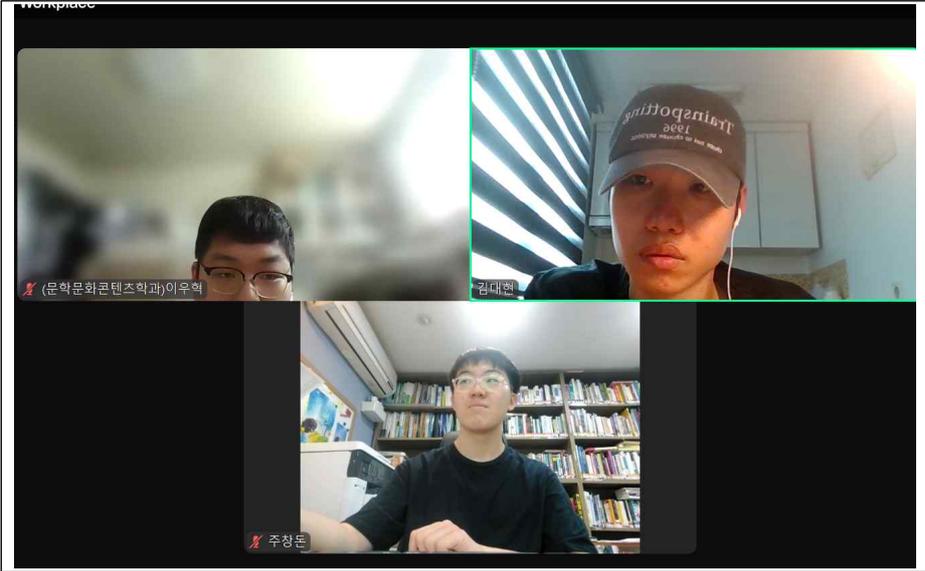
**토론내용 작성**

**주창돈** - 항상 친구를 비즈니스 관계로 사귀어왔지만 대학 친구들과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연락도 자주하고 대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들도 나누다보니 점차 우정친구로 남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했다!

**이우혁** - 대학교에 오면서 친구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했지만, 대학 친구들과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 놀기도 하고 가벼운 대화만 나누기도 했지만, 함께 어려운 일이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정이 깊어졌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끝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나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변한 것 같았다.

**김대현** - 학과 짐이 함께 위기를 겪으며 서로를 신뢰하게 된 것처럼, 한 친구와 갈등을 겪은 뒤 서로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의지하게 된 경험이 있다. 그때 느낀 건, 진짜 우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지켜줄 때 더욱 깊어진다는 점.

**문혜진 교수님** - 예전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사람이랑 우연히 가까워져서 오랜 친구가 된 적이 있다. 학과 짐처럼, 진짜 우정은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 같다.

	일시	6월 5일 10 : 20AM ZOOM 화상미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대현(1911153)	O
		주창돈(2411105)	O
		이우혁(2592014)	O
		이예은	X
	진도	도서명: 허클베리핀의모험(민음사 2005)	진도페이지: 제17장~제22장
4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778 1200 1198 1234">[좌측부터 이우혁, 김대현, 주창돈]</p> <p data-bbox="491 1285 959 1319">※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 data-bbox="491 1330 663 1364"><b>토론내용 작성</b></p> <p data-bbox="491 1375 1493 1576"><b>주창돈</b> - 사회의 규범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허클의 모습과 당시에는 죄라고 여겨졌던 짐을 돕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기와 도덕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 나도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는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가끔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뿌듯했는데 나만의 가치관으로 내 양심을 선택하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p> <p data-bbox="491 1588 1493 1912"><b>이우혁</b> - 허클베리 핀에서 허클은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으면서 점차 성장해 간다. 그는 당시 사회의 규범과 기대에 반하여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신념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가 짐을 돕는 순간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을 넘어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어떤 일이 옳다고 느꼈을 때, 주위의 반대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다. 그 선택을 하면서 내 양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선택이 내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도 나만의 가치관과 도덕적 신념을 더욱 확립할 수 있었다.</p> <p data-bbox="491 1924 1493 2080"><b>김대현</b> - 허클은 짐과의 여정을 통해 사회의 규범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자아를 나간다. 예전에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선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조금은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김대현 (1911153)	<p>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고 토론하면서,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닌 인종차별과 사회 규범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헉이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통해,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 짐과의 관계를 통해 우정이 어떻게 사회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나누며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독서토론을 계기로 독서를 꾸준히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살아가는 데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었다.</p>
	2	이우혁 (2592014)	<p>이번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허클이 사회적 규칙과 기대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모습에서 큰 용기를 느꼈다. 특히, 책 속에서 다루지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풍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허클과 짐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책을 읽고 싶다.</p>
	3	주창돈 (2411105)	<p>'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으며 주인공 허클이 당시 사회의 도덕 기준과 통념을 거스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흑인 노예 짐과 함께 모험하며 점차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게 되고, 결국 사회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허클의 내적 성숙의 과정을 독서토론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원 들의 경험과 인물에 대해 조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했다! 작품을 통해 자유와 우정, 도덕적 용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고, 나 또한 옳은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되었다.</p>
	4	이예은	X